

경주시, 추경 2350억 편성... APEC 준비·지역경제 활성화

본예산, 11.6% 늘어난 2조2600억
APEC 정상회의 기반시설 정비
시민체감도 높은 현안사업 중심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3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경주시의 올해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 2조250억원에서 약 11.6% 증가한 2조26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25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1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347억원으로 389억원 늘었다.

재원은 ▲지방세 수입 5억원 ▲세외수입 64억원 ▲지방교부세 510억원 ▲조정교부금 239억원 ▲국·도비 보조금 47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4억원 등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사업을 중



경주시청.

심으로 편성됐다.

APEC 관련 사업으로는 ▲보문 야간경관 개선 75억원 ▲회의장 진입로 경관 정비 59억원 ▲회의장 주변 교통 인프라 정비 29억원 ▲만찬장 및 회의장 일원 경관개선 20억원 ▲회의장 주변 북한 하천 정비 15억원 ▲주요 사적지 정비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권1지구뉴빌리지사업 61억원 ▲안강 양월2리 LPG 저장탱크 보급 22억원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18억

원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33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9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22억원 ▲논타작물 재배농가 지원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신당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3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억원 ▲마을방범 CCTV 및

가정용 수신기 보급 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집중됐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50억원 ▲유림공영주차장 건립 37억원 ▲흥무로(동대유치원~동대교)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67억원이 편성됐다.

복지 분야에는 ▲참전·보훈명예수당 21억원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15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6억원 ▲청년신(新)골든창업특구 조성 3억원 ▲출생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3억원 등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 열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과 함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11일 화순과 담양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코스’ 450명을 포함해 전국 145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라톤대회 코스는 30km 코스, 하프(Half)코스, 10km 코스, 5.18km 코스, 2km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대회 당일 오전 8시 10분 금호화순리조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해 담양가사문학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다시 금호화순리조트로 돌아오는 코스다. /광주=양수영 기자

창원시

누비전, 200억 규모 확대 발행

경남 창원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확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은 모바일형만 발행되며, 총 2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개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20만원이며, 7%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0년 이전 출생자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 가능하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2일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다만 1960년 이전 출생자 중 1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2일에도 구매 가능하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통영의웰피쉬와 거창의덕유산고라니들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알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등을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해 청년이 모이는 마을을 만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단체에 3년간 국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진행비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김해시

‘책 읽는 도시’ 김해독서대전

경남 김해시는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2025 김해독서대전’을 26~27일 양일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김해독서대전은 ‘책(Booky, 김해)’를 주제로 강연, 공연, 전시, 북페어, 체험 등 6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 단체사진

/전남도

전남도, 5개국 지방정부와 교류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교류 기대
20개 지방정부 국제교류 담당자 참가

전라남도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제2회 전라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열어 아시아 5개국 20여 지방정부와 교류를 강화했다.

교류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교류를 기

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우호지역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잠재 교류 지역까지 아시아 5개국 20개 지방정부에서 40여 명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참가해, 전남도와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전남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2026 여수세계엑스포박람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중점 홍보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안동시,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 48.2만t

처리비용 430억 추정

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길안면 등 6개 지역에서 산불 폐기물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은 NDMS 입력자료 기준 약 48만2000t으로 처리 비용은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단순 매립 및 소각 방식을 지양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날부터 시작된 주별 철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은 지역 내 5개소에 설치된 임시적환장으로 옮겨 처리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진주시 ‘진주드림’, 6개국 해외 상표등록

인도네시아·캐나다 추가 등록 예정

경남 진주시는 21일 시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진주드림’이 일본·홍콩·태국·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 6개국에 해외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주드림’은 시가 지난 2020년 5월 지역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개발한 것으로 ‘진주의 보석 같이 귀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내 우수 농산물 35개 품목에 대해 44개소 1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류, 가공식품류 등 4개 상품류에 대해 국내 상표등록을 완료했고, 과실음료 등 2개 상품류를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해외 수출국에 ‘진주드림’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상표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해외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이 최종 승인됐고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도 추가로 등록될 예정이다.

시는 ‘진주드림 쌀’을 2023년에 호주로 처음 수출했고, ‘진주드림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등 지난해 신선 농산물 5939만 달러, 가공농산물 94만 달러 등 총 603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소담스퀘어 부산 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가 소상공인 700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무료 홍보영상 제작부터 쇼필름 업로드, 라이브커머스 촬영까지 디지털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소담스퀘어’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2025년 소담스퀘어 부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부산’은 시와 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협업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 기관으로, 부산 동구 KT남부산지사 건물 18층에 위치해 있다. 촬영 스튜디오와 녹음실, 편

집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21년부터 이를 통해 총 9781개사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58개사, 3412개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10개 사업을 통해 총 700개사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모집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온라인 쇼필름 업로드 및 쿠폰 발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사업’ ▲제품·매장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게시 지원’ ▲소담스퀘어 시설을 활용해 실시간 판매 방송 촬영·송출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이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